

한국(韓国) 전통(傳統) 예술(藝術)에서 사용(使用) 되는 언어(言語) 표현(表現)에 대하여 — 신명(神明)과 숨을 중심(中心)으로 — 朴 炫 国*

韓國の伝統藝術の言語表現について —— 神明と呼吸を中心 ——

Hyun kuk Park*

この文章では韓國の演行藝術を中心に神明, 呼吸(息)について言及した。辭書に書いてある意味と現實的な意味, そして道教思想を中心に簡単に言及して見た。神明は古代の祭天儀式で祈願から始まる。祭典儀式で歌いながら踊って遊んだ藝術の活動から, 参加者皆が一つになってエクスタシーを感じるその瞬間が‘神明’で, この時の呼吸は生命維持のための呼吸のみならず, 生命の花を咲かせ出そうとする息である。古代の祭典儀式は韓半島に暮した人々が自分たちの希望や祈願, 収穫に対して感謝の意味を神様に伝え, また神様の言葉を聞き, 神様への供物を分けて食べて飲みながら遊ぶ儀式である。この認識は中国から流入した道教と接触しながら, 神明を介して現實から理想世界に連結するに至ったと考えられる。

This report confronts Korean traditional arts linguistic expression, especially the performing arts use of “shinmyong,” and its connection with “breath.” In addition to contrasting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breath” with its actual use, I examine the Confucian thinking underlying this concept. The origins of Shinmyong were prayers during ancient festival cosmic rites. These ritual festivities, when participants joined in the singing and dancing, overcome in a kind of group ecstasy of union, this was known as “shinmyong.” This was considered a way of not only maintaining life, but a breath encouraging the blossoming/fruitfulness of living things. The ancient rites were, for thos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a way of channeling their hopes and prayers, and thanks for rich harvests to transmit to the gods. At the same time, they would listen to the words of the gods, eat together with the gods and enjoy themselves. We can thus consider this recognition of this meaning of shinmyong within the festival rites as a way of transmitting the Chinese Taoist philosophy from the actual ritual practice to the ideal world.

1. 머리말

한국(韓國)의 전통예술(傳統藝術) 공연(公演) 현장(現場)이나 장르 속에는 예로부터 사용(使用)되어 온 독특(獨特)한 용어(用語)가 있다. 이들은 현재(現在)에도 계속(繼續)해서 사용(使用)되고 있다. 판소리의 주임새를 비롯하여 한국(韓國)의 전통(傳統) 무용(舞踊)의 춤사위, 음악(音樂) 등(等)에서는 산조(散調), 엇모리 중모리, 불림, 고개잡이, 다리들기, 외사위, 겹사위, 양사위, 까치걸음 등등(等等) 수(數)를 셀 수 없을 정도(程度)로 많은 용어(用

* Associate Pr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Ryukoku University.



Hyun kuk Park

語)가 지금도 사용(使用)되고 있다. 이 글에서 이런 용어(用語)를 모두 관심(關心)의 대상(對象)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신명(神明)과 숨을 중심(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명(神明)과 숨은 한국(韓國) 전통(傳統) 예술(藝術)의 공연(公演)이나 감상(感想)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용어(用語)이다. 이 글에서는 신명(神明)과 숨을 중심(中心)으로 이들의 기원(起源), 의미(意味), 전개(展開) 양상(樣相) 등(等)에 대(對)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詩學)』에서 문학(文學)의 근본(根本) 목적(目的)은 쾌락(快樂)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中國)의 공자(孔子)는 『논어(論語)』에서 시(詩) 삼백(三百)이 사무사(思無邪)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인(韓國人)의 예술(藝術) 활동(活動)이나 감각(感覺)을 표현(表現)하는 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표현(表現)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에서 필자(筆者)는 한국인(韓國人)은 예술(藝術) 활동(活動)의 최고(最高)의 가치(價值)를 신명(神明)에 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신명(神明)의 기원(起源), 정체(正體)에 대(對)해서 살펴보고, 신명(神明)은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하는 점(點)에 대(對)해서 접근(接近)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명(神明)을 느끼는 인간(人間)이 살아있다는 사실(事實)을 가장 쉽게 확인(確認)하는 것으로 숨에 대(對)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자(孔子) (BC 552-BC 479)는 『시경(詩經)』에 있는 시(詩)에 대(對)해서 論語 為政 第二에서 “子曰 詩三百一言以蔽之 曰思無邪”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시경(詩經)의 시(詩) 삼(三) 백(百) 편(篇)을 한 마디로 표현(表現)하면 생각함에 있어서 사악(邪惡)함이 없다는 말이다. 시경(詩經)은 당대(當代)의 민요시(民謠詩)를 모은 노래집이다. 시(詩)에 대(對)해서 사무사(思無邪)라는 표현(表現)은 단순(單純)히 시(詩)에 한정(限定)되지 않고 시(詩)를 비롯한 문학(文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술(藝術) 활동(活動)의 표현(表現)에서 사무사(思無邪) 즉(即) 사악(邪惡)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극적(消極的)으로 사무사(思無邪)에 그치지 않고 사악(邪惡)함이 없는 진실(眞實)을 추구(追求)하고 진실(眞實)을 표현(表現)하는 것이 예술(藝術) 활동(活動)이 아닌가 한다. 문학(文學)을 비롯하여 예술(藝術) 활동(活動)에 참가(參加)하는 인간(人間)은 작품(作品) 속의 진실(眞實)에 감동(感動)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朴 異汶, “藝術과 真理”. 『詩와 科學』, 一潮閣, 1975, pp. 99-115.).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시학(詩學)에서 비극(悲劇)에 사용(使用)된 음악(音樂)을 말하면서 음악(音樂)이 교훈(敎訓)이나 음악(音樂)을 말하지 않고 카타르시스를 의도(意圖)한다고 말했다. 카타르시스는 이열치열(以熱治熱)하는 것, 즉(即) 우리의 내부(內部)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감정(感情)을, 비극(悲劇)의 관상(觀賞)에 의해서 동종(同種)의 감정(感情)을 자극(刺戟) 환기(換氣)함으로 말미암아 배설(排泄)하여 경쾌(輕快)한 정신(精神)이 되는 것을 의미(意味)한다고 하였다(아리스토텔레스, 孫明鉉訳, 『詩學』, 博英社, 1983, pp. 21-23.).

이러한 카타르시스가 서정시(抒情詩)에서는 융화(融和)로 표현(表現)되기도 한다. 즉 서정시(抒情詩)의 작품(作品)을 읽는 독자(讀者)는 작품(作品)을 통(通)하여 자신(自信)의 자아(自我)의식(意識)이 녹아 내리는 체험(體驗)을 하게된다. 이것은 달리 융화(融和)라고 표현(表現)할 수 있다고 하였다(에밀 슈타이거 Emil Steiger, 李裕榮・吳賢一 共訳, 『詩學의 根本概念 Grundbegriffe der Poetik』, 三中堂, 1978, p. 109.).

2. 신명(神明)

공자(孔子)의 사무사(思無邪)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융화(融和)의 개념(概念)은 그대로 신명(神明)에도 적용(適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신명(神明)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어(韓國語) 사전(辭典)의 예(例)를 소개(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신명 : 흥겨운 신과 멋. 민요를 비롯한 노래들은 집단적 신명이 그 기반이 된다.

신명을 내다, 신명내다 : 신과 멋이 생기다. 신명을 돋구어서 내다. (한글학회지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 p. 2588.)

신명 : 흥겨운 멋이나 기분. 신명이 나서 노래를 부르다. 신명지다 : 신이 나서 멋지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찬, 『현대 조선말 사전』, 도서출판 백의, 1982, p. 1571.)

사전(辭典)에 소개(紹介)된 신명(神明)은 흥겨운 신과 멋과 그러한 기분(氣分)을 말한다.

신명(神明)은 원래(元來) 고유어(固有語)로서 위에서 언급(言及)한 흥겨운 신과 멋의 의미(意味)로 사용(使用)되었다. 다만 무속(巫俗) 신앙(信仰)에서는 굿거리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며, 천지신명(天地神明)의 경우 신(神)의 의미(意味)로 사용(使用)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고전(古典) 문헌(文獻)에서 신명(神明)이라는 말은 오래 전(前)부터 사용(使用)된 흔적(痕迹)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삼국유사(三國遺事)』나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신명(神明)이란 한자어(漢字語)에 대(對)한 언급(言及)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경우(境遇) 한글 번역본(翻譯本)에는 네 번(番) 정도(程度) 나오고 있다. 번역본(翻譯本)에 언급(言及)된 신명(神明)은 주(主)로

“도(道)를 닦아서 신명(神明)에 했다.”

“신명(神明)이 보살펴 여러 가지 재앙(災殃)으로 적(敵)을 방어(防禦)할 수 있었다.”(僧一然, 『三國遺事』 新羅本紀, 직지 프로젝트, 김민수 역)

이들의 의미(意味)는 현재(現在) 한국(韓國) 예술(藝術) 활동(活動)의 감상자(鑑賞者)가 느끼는 감정(感情)과는 약간(若干) 거리(距離)가 있는 표현(表現)이다.

신명(神明)이라는 말을 이해(理解)하기 위(為)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一般的)으로 즐거울 때 사용(使用)하는 말에 주목(注目)할 필요(必要)가 있다. 이러한 경우(境遇) 한국인(韓國人)들은 ‘신난다’라고 말한다. 신이 나는 현상(現象)이 기분(気分) 좋고 즐겁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時間) 체험(體驗)이다. 여기서 ‘신이 나는 현상(現象)’을 ‘신’을 그대로 신(神), 하느님으로 해석(解釋)할 수 있는 가는 별도(別途)로 하고자 한다. 다만 ‘나는’ 현상(現象)은 생명(生命)의 탄생(誕生), 기쁨의 탄생(誕生)과도 관련(關聯)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반대(反對)되는 현상(現象) 즉(即) 부정적(否定的)인 현상(現象)으로서 ‘탈이 났다’라는 표현(表現)을 사용(使用)한다. ‘탈이 나는 현상(現象)’은 인간(人間)에게 해(害)를 가져다주는 부정적(否定的)인 측면(側面)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側面)에서 신명(神明)이 나는 형상(形象)은 예술(藝術) 체험(體驗)이 인간(人間)에게 가져다 주는 최고(最高)의 순간(瞬間), 기쁨과 화합(和合)과 열락(悅樂)의 시간(時間)임에 틀림이 없다.

1960년대(年代) 이후(以後) 여러 선학(先學)들이 한국인(韓國人)의 신명(神明)과 예술(藝術) 체험에 대(對)해서 언급(言及)한 바가 있다(金烈圭, 『韓國人の神明』, 主流, 1982., 蔡熙完, “集團演戲에 있어서 藝術體驗으로서의 神明”, 『湖西文化論叢』 2, 西原大學湖西文化研究所, 1983. 等等).

최근(最近) 연구(研究)에서는 그간 발표(發表)된 신명(神明)에 대(對)한 연구(研究) 결과(結果)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整理)하였다. 이들은 모두 신명(神明)의 이해(理解)와 접근(接近)에 좋은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고 있다고 본다.

1. 신명(神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생명력(生命力),
2. 신명(神明)은 밝고 역동적(躍動的)이고, 긍정적(肯定的)인 속성(屬性)
3. 신명(神明)은 원초적(原初的)으로 자유(自由)로운 속성(屬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一般的)인 사회(社會) 규율(規律)이나 규제(規制)로서 전혀 통제(統制)할 수 없다(金鉉哲, “韓國藝術における神明プリの特徴に関する研究”-강강수월래와 靈山쇠머리대기를 중심으로-, 朝鮮學會發表, 2007. 10. 7.).

한민족(韓民族)이 노래와 춤을 좋아했다는 기록(記錄)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陳壽(AD. 233-297)撰, 『三國志』 卷三十烏丸鮮卑東夷傳三十, 景仁文化史編, pp. 831-853.). 그리고 이 노래와 춤이 고대(古代) 제천의식(祭天儀式)의 제사(祭祀)와 관련(關聯)되어 있다는 사실(事實)은 여러 연구(研究)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천의식(祭天儀式)이 춤의 원류(源流)라는 주장(主張)도 있다(蔡熙完, “祭天儀式과 韓國 춤의 原流”, 『民族美學』 002, (사)民族美學研究所 엮음, 理論과 實踐, 2003. 2.). 이 춤과 노래는 신라(新羅) 시대(時代) 화랑(花郎)의 수련(修練) 방법(方法)의 기초(基礎)였다(李基東, “花郎道”,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2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p. 213-216.). 전국(全國) 명산(名山)을 찾아다니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수련(修練)을 했다는 기록(記錄) 등(等)에서도 화랑(花郎) 역시(亦是) 신명(神明)을 체험(體驗)했을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그리고 화랑(花郎)이 무당(巫堂)의 기원(起源)이라는 설(說) 등(等)을 종합(綜合)하면 화랑(花郎)이 지녔던 전통(傳統)의 일부(一部)가 현재(現在)의 무당(巫堂)에게도 존재(存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柳東植, “創造的 複合展開로서의 花郎道”,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學校出版部, 1985, 5쇄, pp. 82-97.).

한반도(韓半島)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제천의식(祭天儀式) 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렇다면 이 제천의식(祭天儀式)을 통(通)하여 신명(神明)을 느끼고 신명(神明) 속에서 새로운 삶의 용기(勇氣)를 북돋우면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명(神明)은 제천의식(祭天儀式)이나 예술(藝術) 활동(活動) 속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겪게되는 현상(現狀)으로서 참가자(參加者) 모두가 하나가 되는 초현실적(超現實的)인 체험(體驗)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人間) 현실(現實)에는 여러 가지 불만(不滿), 원한(怨恨), 감정(感情) 등(等)을 체험(體驗)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否定的)인 감정(感情)의 응어리가 그대로 멈춰있다면 육체(肉体)의 병(病)이나 사회(社會)의 병(病)으로 썩게되고 파과(破壞)되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노래판이나 춤판에서 신명(神明)을 경험(經驗)하면서 사회적(社會的)인 억압(抑壓)이나, 불평등(不平等), 인간(人間)의 한계(限界)에서 오는 좌절(挫折)이나 원한(怨恨)이 풀려지는 체험(體驗)을 하게되고 삶에 활력(活力)을 주게된다(蔡熙完, 『탈춤』, 대원사, 1992. pp. 60-73., 신명(神明), 『民族美学』 004, (社)民族美学研究所엮음, 2006, pp. 66-70.).

신명(神明)은 제천의식(祭天儀式)과 관련(關聯)되어있고 이 제천의식(祭天儀式)은 현재(現在)에도 무속(巫俗)이나 마을 축제(祝祭), 탈춤 등(等)의 속에 남아있다. 신명(神明)이 초현실적(超現實的)인 체험(體驗)이라는 뜻과 더불어 무속(巫俗)곳의 이름으로도 사용(使用)된다. 특(特)히 무당(巫堂)곳에서 공수를 받는 상황(狀況)에서 체험(體驗)하는 떨림 현상(現象), 그리고 춤과 노래가 바로 신명(神明)이다(金烈圭, ‘신명’,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p. 764-786., “散調의 美学과 韓國人—一般文化學으로서의 民族美学을 爲한 試論—”, (社)民族美学研究所編, 『民族美学』 002, 이론과 실천, 2003, pp. 54-71.). 즉(即) 직접적(直接的)이고 집단적(集團的)인 신명(神明) 내지(乃至) 신비(神秘) 체험(體驗)이 표현(表現)된 것이 고대(古代) 제천의식(祭天儀式)이다.



Four celestial maidens of the Knife-dance *Sungjonmu*

3. 숨

살아있는 생물(生物)은 모두 숨을 쉰다. 즉 호흡(呼吸)을 한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 있는 것은 숨을 쉰다. 따라서 숨은 생명(生命)을 뜻하기도 한다. 먼저 한국어(韓國語) 사전(辭典)에서 말하는 숨을 정리(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숨 : 사람이나 동물이 입이나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운(氣運), 또는 그렇게 하는 일, 호흡(呼吸), 기식(氣息), 푸성귀 따위의 생생하고 뽀뽀한 기운, 소금에 절여 숨을 죽이다.

숨을 거두다 - 숨이 지다

숨을 끊다 - 목숨을 끊다.

숨이 죽다 - 시들어서 생기를 잃다.

숨을 쉬다 - 숨을 내보냈다 들여 마시었다 하는 행위, 호흡하다. 살아서 움직이거나 활동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신 기철 신 용철,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9, 2 판, p. 2020.).

이상(以上)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아 있는 온갖 것들은 숨을 쉰다. 한자어(漢字語)로는 호흡(呼吸)이라고 표현(表現)한다. 이 말은 날숨(호 : 呼 : 내쉬다)과 들숨(흡 : 吸 : 들이쉬다. 마시다)을 말한다.

신명(神明)은 도교(道敎)에서 수양(修養)의 최고(最高) 경지(境地) 혹은 체험(體驗)으로 사용(使用)되기도 했다(李 東豪, “修練道敎의 房中術에 관한 現代醫學的 考察”, 道敎와 韓國文化, 韓國道敎思想硏究會 編, 『道敎와 韓國文化』, 亜細亞文化史, 1988. 12, p. 426, …十動不射通於神明, 『素女經』 재인용.). 신명(神明)과 관련(關聯)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숨 역시(亦是) 호흡법(呼吸法)으로서 도교(道敎) 수양(修養)의 한가지 방법(方法)이다. 이 호흡법(呼吸法)을 통(通)해서 우주(宇宙)의 원기(元氣)를 체내(體內)에 축적(蓄積)하여 초월적(超越的)인 기력(氣力)을 획득(獲得)하는 방법(方法)이다. 즉 도교(道敎)의 호흡법(呼吸法)은 태식법(胎息法)이라고 하여 인간(人間)이 어머니의 배속에서 태아(胎兒)였을 당시(當時)의 호흡법(呼吸法)으로 호흡(呼吸)한다고 하여 태식법(胎息法)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호흡(呼吸) 시(時) 들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날 숨을 짧게 하고 들숨과 날숨 사이의 폐기(閉氣)를 연장(延長)시키는 것이다. 이 폐기(閉氣)는 정기(精氣)로 풍사(風邪)를 몰아내는 일이어서 병(病)을 예방(預防)하고 있는 병(病)까지도 없애므로 양생(養生)하는 천방(千方) 백약(百藥)도 따르지 못한다고 하였다(車 柱環, “韓國道敎의 宗教思想”, 道敎와 韓國文化, 韓國道敎思想硏究會 編, 『道敎와 韓國文化』, 亜細亞文化史, 1988. 12, pp. 465-478.).

보통(普通)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한다. 여기서 숨은 호흡(呼吸) 즉 들숨과 날숨을 말하고 쉰다는 것은 휴식(休息)을 취(取)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 휴식(休息)이 생명(生命)을 연장(延長)시키고 몸의 병(病)을 치료(治療)한다는 것이다. 휴식(休息)의 시간(時間)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도식(無爲徒食)의 시간(時間)처럼 보여도 더 큰 힘을 모으는 소중(所重)한 시간(時間)이고 그 힘으로 생명(生命)이 연장(延長)되고 신선(神仙)이 될 수 있는 수양(修養)이 된다. 도교(道敎)에서 폐기(閉氣)를 통(通)하여 몸 안에 생명(生命)의 꽃을 피워낸다고 한다(金 洛必, “<<海東伝道録>>에 나타난 道敎思想”, 韓國道敎思想硏究會 編, 『道敎와 韓國思想』, (株)汎洋社出版部, 1988. 2, pp. 135-170.). 이 태식법(胎息法), 단전호흡(丹田呼吸), 복식(腹式) 호흡(呼吸)이라고 하는 것이 숨의 본래(本來) 모습(模襲)이다. 한국(韓國) 예술(藝術)의 연행(演行) 활동(活動)은

이 호흡법(呼吸法)에서 시작(始作)한다. 관소리(管소리)의 유장(悠長)함도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숨을 깊이 아랫배까지 들여 마시고 잠시 쉬는 시간(時間)을 갖은 다음 뱉어내면서 소리가 나온다. 한국(韓國) 무용(舞踊)의 움직임 역시(亦是) 이 호흡법(呼吸法)과 몸의 조화(調和)를 얼마나 효율적(效率的)으로 표현(表現)해 내느냐에 성패(成敗)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4. 마무리

인간(人間)은 본능적(本能的)으로 놀이를 한다. 놀이에는 인간(人間)의 본질적(本質的)인 것이 담겨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대(古代) 제천의식(祭天儀式)의 일부(一部)로서 행(行)해지던 행사(行事)가 후대(後代)로 내려오면서 신성성(神聖性)은 사라지고 놀이로서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신명(神明)과 숨은 고대(古代) 제천의식(祭天儀式)에 기원(起源)을 두고 있다. 제천의식(祭天儀式)에서 노래하면서 춤추고 놀던 예술(芸術) 활동(活動)에서 참가자(參加者) 모두가 하나되어 엑스터시를 느끼는 그 순간(瞬間)이 신명(神明)이고 이때 쉬는 숨은 생명(生命) 유지(維持)를 위(為)한 호흡(呼吸)에 그치지 않고 생명(生命)의 꽃을 피워내려는 숨이다. 고대(古代) 제천의식(祭天儀式)은 한반도(韓半島)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自身)들의 바람이나 기원(祈願), 추수(秋收)에 대(對)한 감사(感謝)의 뜻을 신(神)에 전(伝)하고 신(神)의 말을 듣고 신(神)의 음식(飲食)을 나누어 먹고 마시며 노는 의식(儀式)이다. 이 의식(儀式)이 민간 신앙(信仰)으로 정착(定着)되어 내려오다가 중국(中國)에서 유입(流入)된 도교(道教)와 접촉(接觸)하면서 신명(神明)을 통(通)하여 현실(現實)에서 이상(理想) 세계(世界)에까지 연결(連結)된 것으로 본다. 도교(道教)에서 태식법(胎息法)이라는 수양(修養)을 통(通)하여 신선(神仙)이 되어 신명(神明)의 세계(世界)에 들어가게 된다. 신명(神明)은 도교(道教)에서 현실(現實)의 육신(肉身)을 지닌 채 장생불사(長生不死)를 누리기를 꿈꾸어 왔기 때문에 넋과 육체(肉体)의 양분론적(兩分論的) 대립(對立)으로 보지 않고 현실(現實)에서 숨을 쉬고 활동(活動)하면서 신선(神仙)이 된다는 이념(理念)을 실현(實現)하려고 했다(金 烈圭, “넋 - 宗教”, 『韓國文化 象徵辭典』, 東亜出版社, p. 161.).

이 글에서는 한국(韓國) 연행(演行) 예술(芸術)을 중심(中心)으로 신명(神明), 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전적(辭典的) 의미(意味)와 현실적(現實的) 의미(意味), 그리고 도교(道教) 사상(思想)을 중심(中心)으로 간단(簡單)히 언급(言及)해 보았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具體的)이고 실제적(實際的)으로 신명(神明)의 메커니즘을 분석(分析)할 필요(必要)가 있다. 그리고 숨 역시(亦是) 숨의 움직임 즉 날숨, 쉼, 들숨의 세 가지가 어떻게 무용(舞踊) 동작(動作)을 비롯한 예술(芸術) 창작(創作)이나 표현(表現) 과정(過程)과 연결(連結)되며 해석(解析)되는가를 과제(課題)로 남겨두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参考文献

- 金 洛必, “<<海東伝道録>>에 나타난 道教思想”, 韓國道教思想研究会 編, 『道教와 韓國思想』, (株)汎洋社出版部, 1988. 2.
- 金 鉉哲, “韓國芸術における神明プリの特徴に関する研究” - 강강수월래와 靈山쇠머리대기를 中心으로 -, 朝鮮学会発表, 2007. 10. 7
- 金 烈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一潮閣, 1982., 『韓國人の 神明』, 主流, 1982.,

- 宮家 準,『宗教民俗学』,東京大学出版会,1990.
- 朴 異汶,『詩와 科学』,一潮閣1975.
- 朴 炫国,『韓国空間說話研究』,国学資料院,1994.
-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孫明鉉訳,『詩学』, *De Arte Pootica*, 博英社,1983.
- 에밀 슈타이거 Emil Steiger, 李裕榮・吳賢一 共訳,『詩学の 根本概念』, *Grundbegriffe der Poetik*, 三
中堂,1978.
- 吉田 敦彦,『日本神話の 源流』,講談社,1881.
- 柳 東植,『韓国巫教의 歴史와 構造』,延世大学校 出版部,1985,5.
- 曺 星国,『원다리 만년교는 님의 기개요』1, 圖書出版 展望,2004.
- 車 柱環,“韓國道教의 宗教思想”,道教와 韓國文化,韓國道教思想研究会 編,『道教와 韓國文化』,亜細
亜文化史,1988.12.
- 蔡 熙完,“集團演戲에 있어서 芸術體驗으로서의 神明”,『湖西文化論叢』2,西原大学湖西文化研究所,
1983.,『탈춤』,대원사,1992.
- 코리아나 編輯部,“*Shinmyong:The Performer and the Spirit of Life*”,The Korean Foundation,1988,
겨울 제2권 4호.
- 테렌스 호옥스,오원교 옮김,『構造主義と記号学』,新雅社.1984.
- 韓 陽明,“民俗芸術을 통해 본 神明풀이의 存在樣相과 性格”,『比較民俗学』22,比較民俗学会,2002,
- 黃 涓江,『韓국의 神話』,檀大出版部1988.
- 韓國道教思想研究会 編,『道教와 韓國思想』,(株)汎洋社出版部,1988.2.
- 韓國道教思想研究会 編,『道教와 韓國文化』,亜細亜文化史,1988.12.
- 韓國文化象徵辞典編纂委員會,『韓國文化象徵辞典』,東亜出版社,1992.
- 韓國精神文化研究院,『韓國民族文化大百科辞典』27,1991.
- (社)民族美学研究所編,『民族美学』002,理論と実践,2003.
- (社)民族美学研究所編,『民族美学』004,圖書出版 展望,2005.